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시	배포	2021.7.13.(화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지배구조팀장 박 진 애(02-2100-2520)	담 당 자	김 영 석 사무관 (02-2100-2592)		
	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장 최 인 호(02-3145-8200)		장 항 필 팀 장 (02-3145-8204),		

제 목 :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

□ 금융위원회는 '21.7.13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,

- 삼성, 한화, 미래에셋, 교보, 현대차, DB (자산합계 순서) 등 6개 기업집단을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.

<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('20년말 기준, 조원, 개) >

그룹명	자산합계 ¹⁾	주력업종 ¹⁾	비주력업종 ¹⁾	소속 금융회사 ²⁾
삼성	487.4	보험(401.5)	여수신·금투(85.6)	33
한화	158.6	보험(145.4)	여수신·금투(13.1)	19
미래에셋	136.3	금투(86.3)	여수신·보험(46.3)	99
교보	126.1	보험(116.0)	금투(9.9)	10
현대차	71.3	여수신(62.7)	금투(8.6)	43
DB	69.4	보험(59.3)	여수신·금투(10.0)	15

* 1) 국내 금융회사 기준, 2) 국내 및 해외금융회사 기준

- 6개 기업집단이 「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」(*('21.6.30 시행)상 지정 요건*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.

* 국정과제 중 하나인 “공정경제 구현”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(24-4)로 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며, 지난 '20.12월 국회를 통과

※ 「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금융복합기업집단법”)상 지정 요건 :

- ① 여수신업·금융투자업·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 영위
- ② 국내 금융회사 자산합계 5조원 이상
- ③ 국내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합계가 5조원 미만이거나, 해외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준하는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 등

- 반면,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인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.

- 다우키움, 유진, 태광, 카카오, 현대해상 등 5개 기업집단이 이에 해당('20년말 기준)하며,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 증가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※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금번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('20년말 기준)

기업집단	다우키움	유진	태광	카카오	현대해상
주력업종	금투(32.1조원)	금투(10조원)	보험(43.6조원)	여수신(26.7조원)	보험(48.8조원)
비주력업종	여수신(4.0조원)	여수신(3.0조원)	금투(24)	금투(0.5조원)	금투(0.06조원)

□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, 자산·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*하여야 합니다.

*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('21.8.13일)에 금융감독원에 보고

- ② '22.1.14일*부터 집단 차원의 위험(자본적정성)을 정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고, 내부통제·위험관리·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합니다.

*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후

-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.

☞ [별첨]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

□ 이번 지정은 6개 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대내외 신인도 제고*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* ① IMF : FSAP 평가를 통해 한국의 금융그룹감독제도를 높이 평가('20.4.20.)

② 무디스 : 금융그룹감독제도가 금융그룹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('20.7.16.)

- 아울러,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춧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가.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·위험관리 등

□ (내부통제·위험관리)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내부통제·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함

○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*을 반영

*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,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·운영,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, 임원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등

○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·방법* 등을 반영

*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·평가·통제 방법,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의 방법·절차,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·운영 등

나.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

□ (자본적정성 비율) 계열사 간에 부실이 전이·확산되지 않도록 적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

○ 계열사 간 상호출자 등 자본의 중복이용을 제외한 실제 손실 흡수능력(통합자기자본)이, 집단 수준의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(통합필요자본) 이상 되도록 유지

$$\text{자본적정성 비율} = \frac{\text{통합자기자본 (자기자본합계액 - 중복자본)}}{\text{통합필요자본 (최소요구자본합계액 + 위험가산자본)}} \geq 100\%$$

□ (위험자본 가산) 감독당국의 추가적인 위험평가 결과(매년)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통합필요자본에 가산

○ 평가항목은 ①계열사 위험(재무·비재무, 30%), ②상호연계성(지배 구조·내부거래, 50%), ③내부통제·위험관리(20%) 등으로 구성

- 위험가산자본은 감독당국의 **평가결과**(1⁺~5⁻, 총 15등급)에 따라 0~20%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

<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규모(%) >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소등급	+ 0 -	+ 0 -	+ 0 -	+ 0 -	+ 0 -
(그룹위험)	(거의 없음)	(조금 있음)	(부분적 존재)	(다소 높음)	(매우 높음)
가산비율(%)	0 0 0	1.0 2.0 3.5	5.0 7.0 8.0	10.0 12.0 14.0	16.0 18.0 20.0

다.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·공시 등

- (내부거래) 내부거래가 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50억원* 이상 내부거래시 이사회 승인

* 자기자본의 5%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

- (보고·공시)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①소유·지배구조, ②내부통제·위험관리, ③자본적정성, ④내부거래 등을 보고·공시

라. 위험관리실태평가

- 감독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

- 위험관리실태평가는 4개 분야(①내부통제·위험관리, ②자본적정성, ③위험집중·내부거래, ④소유구조·위험전이)의 정성평가로 이루어짐

마.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

-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* 금융당국에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

* ①자본적정성 비율이 100% 미만 또는 ②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